

대본 1차

안녕하십니까 코딩인력사무소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총 4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먹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절대적인 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부족과 낮은 품질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데이터 라벨러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고령자 관련 통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전체 인구수 대비 고령자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생산 가능인구는 앞으로도 점점 감소할 전망입니다.
결국 고령자 인구도 생산 가능 인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령자의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1. 노인 일자리 창출과 2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친근한 사투리에서 이름을 따온 ‘뽕시당가’ 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를 타겟으로 잡은 서비스인 만큼 왜 고령자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들과, 디지털 소외를 느끼던 고령자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구축해가며 함께하는 **가치...**

서비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입니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은 MySQL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Flutter를 통해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구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으며, 이식성이 좋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플라스크를 통한 웹 구현, 그리고 향후 라벨링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컨센서스 라벨링, 딥러닝 등을 이용하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웹 시연 영상입니다. 입력한 데이터의 라벨이 MySQL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이름이 '뭉시당가'인 이유는 호남지역이 특히 고령 인구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지만, 통계자료를 보시면, 호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타 지역으로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가 가져올 기대효과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는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AI기업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여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가치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데이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여
데이터라벨링, 키오스크 이용 교육 등 IT 교육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고령자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그 효과로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와 논문들입니다.

지금까지 팀 코딩인력사무소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